위기의식 오류의 위기

(시편 124:1~8)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위기의식 오류의 위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위기의식 오류의 위기'
위기 아닌 것을 위기로 오해하는 위기의식의 오류가 진짜 위기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영철학은 한 마디로 "위기의식이 변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영철학의 위기의식이 드러난 일화를 모아둔 글을 보았습니다.
2001년에 삼성전자가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전체가 순항하던 상황이었을 때에 이건희 회장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일갈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감이 회사 전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그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와 있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축하하고 더 잘하자 격려할만한 상황에서 회장이 위기감을 조성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2010년에 분기이익이 십조 원을 넘었을 때에도 "십 년 후 삼성이 세계 1위를 하는 제품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도대체 성과에 만족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초에도 괄목할만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가에게는 만족이란 없다. 기업가는 항상 비관적이다. 기업과

위기는 숙명적인 동반자이며 기업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자면 기업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위기를 자초하는 기업가인 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기를 창조하는 기업가인 셈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위기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망발을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사드문제로 인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구원의 감격 또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본 시는 이전 시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다윗이지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적대세력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극명한 위기상황마다 개입하셔서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우리 편'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본시에 제목을 붙이자면 '내 편이신 하나님에 의한 위기탈출'이라고 하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도 소름을 돋게 하는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을 몰라서 탈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위기가 아닌데도 탈출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그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고 구원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물론 본 시의 배경이 되는 위기는 물리적인 차원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에서부터의 구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에돔과 수리야 등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황으로부터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던 후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에 맞설 때에 성가대를 앞세워 드고아 들로 나갔습니다.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할 때에 적들이 자멸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하룻밤에 괴멸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구약성경을 봐도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하였고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있을 때에도 여호와 숭배는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의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물리적 차원에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했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순교의 상황보다 더 아찔하고 위급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지 않고 죽음을 진행시키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는 위기란 대체 무엇일까요?
본 시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 시가 말하는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라고 하였고 3절에서는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에 덮이는 상황으로 대적들에게 장악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대적들의 이빨에 씹힐 뻔한 모습을 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오류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위기는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하였고, 2절 하반부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을 위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의해 초래되는 물리적 위기상황은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삶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가 되느냐, 한낱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날쌘지 가지고 갔던 총알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산하려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호랑이가 포수의 앞길을 틀어막습니다. 포수는 진땀을 흘리면서 온 몸을 뒤지고 있을 때에 우연히 총알 하나를 뒷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떠올리고 장전하여 달려드는 호랑이를 쏘아 죽였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호랑이와 마주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포수는 호랑이와 마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포수에게 위기는 호랑이가 아닌 총알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 아찔한 것이 아니라 총알이 없을 때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개인과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삼라만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무들을 키우시며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내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솜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상태가 분명하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차치하고라도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조를 이었던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은 결국 위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왕조의 시조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위기의식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의식은 물리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추구했다’라는 것은 곧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최고의 가치와 연결되어 찾아옵니다.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선민들은 부자 되지 못하는 가난과 부흥하지 못하는 수적으로의 정체상태를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위기였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자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기가 막힙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데

정작 하신 말씀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사랑하신 주님은 오히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기를 자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가진 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위기일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강조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의 간부들이라면 연봉 십억 이상을 받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는 재물을 더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있는 재물을 까먹는 적자가 나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가장 두려워할 위기를 자초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3~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면 좀 완화시켜서 말씀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며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라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위기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나님과 재물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자 청년은 재물 편을 들고 맙니다. 재물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자 청년의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편짜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앞에 건강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건강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건강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강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건강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건강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자녀의 형통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형통해야만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자녀의 형통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통을 기쁨과 만족으로 믿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재물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데 내 능

력은 재물을 얻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재물을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붙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편을 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부자 청년의 편이 되실 수 없음을 위기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없어져야만 했기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나 아무래도 자신의 재물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 좋은 재물을 놔두고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렵기에 주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부자 청년을 돌이키시고자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두고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몰수해 가실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적자가 나게 하실 것이고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쫄딱 망해서 가정은 파탄 나고 거지꼴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좇는 동안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계속 부자였다면 이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감격에 겨워 노래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럴 수 없었으리라고 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재물 편으로 남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로 오해해 왔던 재물을 없애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부자였으면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위기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노약자까지 이백오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이었고 광야 한 복판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인 상황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렸습니까? 몸은 말합니다. '병에 걸린 한 행복할 수 없다. 인상 쓰고 다녀야 한다.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에 맞아죽는 순간에도 얼굴에서 천사의 빛이 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

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병든 몸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께 갈 뿐이고, 낫게 해주신다면 해야 될 일이 있기에 고치실 뿐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때가 되면 졸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죽음은 마땅한 과정이고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죽음조차도 위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과 나의 삼각관계 안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죄의 체질은 자꾸 세상 편을 들려고 합니다. 세상 것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려 합니다. 세상 것이 있어야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체질을 가지고 세상 편을 드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프레임 안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밀한 곳까지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편을 들고 세상만이 나를 웃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전죄를 가진 나를 끊임없이 죽은 자로 인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 때에 위기에 대한 오해는 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파만난 배 위에서 난리치던 제자들처럼 삶이 위기라고 아우성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압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합일이 되어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는 오해된 위기의식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위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없을 만큼 내가 세상 편으로 기울어진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세상 편을 드는 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 편이 되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편이 되도록 굳어진 우리의 죄적 체질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내 편 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기로 여기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